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연구원소식

<http://ecopia.incheon.go.kr>

보건환경연구원 소식
2020. 여름호

Vol.37

C contents

주요업무실적	03
보건분야 질병연구부, 인천광역시 2020년도(2019년도 PM사업 평가) 우수부서로 선정	03
봄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03
중국에서 기증받은 마스크 긴급 검사	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강화	04
천연물 향생제 대체재 최종 특허 등록	04
환경분야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을 위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	05
그린빌딩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조사연구	05
하천 수질건강을 위한 물환경측정망 운영	05
생태독성 숙련도 평가 '적합'	06
동물분야 강화지역 소 구제역 감염(NSP)항체 검출 농장 바이러스 순환검사	06
도서벽지 가축방역 및 무료 진료	06
주요추진계획	07
보건분야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	07
식약처와 한약재 안전관리 공동 연구	07
소금 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착수	08
환경분야 하절기 오존 예·경보제 운영	08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08
해수욕장 수질검사	09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목욕장수 수질검사	09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10
동물분야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발생위험도 조사	10
원유 잔류물질 검사	10
보건·환경·동물위생 정보	11
학술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하세요!	11
농약, 농산물에 남아 있으면?	11
서방정, 장용정 그게 뭐야? 제형마다 다른 약 복용법	12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12
2020년 달라지는 사항	13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보완·강화	13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추가	13
연구원 이모저모	14
활동, 행사 소식	14
수상 및 인사동정	15
코로나19 완치자 혈액 공여	16



보건 분야

❖ 질병연구부, 인천광역시 2020년도 (2019년도 PM사업 평가) 우수부서로 선정

질병연구부가 인천광역시 2020년도(2019년도 PM사업 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2019년에 질병연구부에서는 「지역사회 현안감염병 집중 추적 조사」 사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취약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유행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주의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연구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원내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민·관이 협업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였다. 연구결과는 중앙부처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시민들에게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 및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초기대응 및 가검물 채취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환경가검물 채취용 스타트 키트를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하였으며, 환례 공동노출 환경에 대한 소독 등의 집중관리를 유도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였다.

이와 같은 탁월한 업무성과로 인하여 질병연구부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포상금은 직원 사기진작 공통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중국에서 기증받은 마스크 긴급 검사

약품분석과는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마스크를 8회에 걸쳐 긴급 검사하였다.

우리 시는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웨이하이, 텐진, 다롄 등 중국 8개 도시로부터 마스크



▲ 중국에서 기증받은 마스크

17종을 기증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으로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원은 국내 의약외품 기준을 적용한 순도 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분석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부족했던

❖ 봄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농산물검사소(삼산, 남촌)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7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400종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봄나물 2건의 부적합을 적발하였다. 이번 검사는 봄철 자주 섭취하고 부적합이 빈발하는 봄나물(취나물, 시금치, 방풍나물, 돌나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풍나물에서 에토프로포스(살충제)가 0.67 mg/kg(기준: 0.05 mg/kg), 취나물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390 mg/kg(기준: 0.05 mg/kg)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지자체에 긴급 통보하였다. 농산물 검사소는 앞으로도 안전한 제철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봄나물

시기에 검사결과를 당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마스크의 종류

1) 의약외품 : 제조와 판매 시 식약처로부터 품목별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 보건용 마스크 : 호흡기 감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KF80 : 입자성 유해물질(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 KF94, KF99 :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 수술용 마스크 :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

2) 공산품

- ◆ 방한대 : 추위로부터 얼굴 보호
- ◆ 산업용 방진마스크 : 산업현장에서 미세 분진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SARS-CoV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이다. 사람 간 전파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임상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다.

질병연구부는 중국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으로 지난 1월부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상황근무팀, 진단검사팀, 행정지원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6월 1일 0시 현재 30,877건을 검사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161건을 확진하였다. 또한 확진자

발생 6개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성 조사 315건을 실시하여 3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즉시 대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 검사를 통하여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 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천연물 항생제 대체재 최종 특허 등록

식약연구부는 천연물 항생제를 개발하여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검사와 규제만으로는 항생제 사용을 감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수산물 양식장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유관기관(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과 공동으로 '참조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대체재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식약연구부는 '수산물 사료첨가제의 제조방법과 그에 의해 제조되는 사료첨가제 및 사료'로 2018년 특허를 출원(10-2018-009719(2018.8.22.))하고, 2019년 12월에 최종

등록(10-2056650(2019.12.11.))하였다. 이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체재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인천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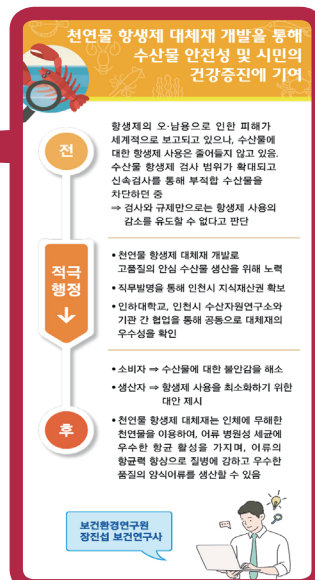
천연물 항생제 대체재 개발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남촌농수산물검사소의 장진섭 연구사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수상하였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검사·규제·행정처분의 일반화된 업무의 틀을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허명 : 수산물 사료 첨가제의 제조방법과 그에 의해 제조되는 사료첨가제 및 사료

(출원번호: 10-2018-009719(2018.8.22.)) 등록번호: 10-2056650(2019.12.11.))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리플릿



▲ 천연물 항생제 대체재 특허





환경 분야

❖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을 위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

환경조사과는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대기오염측정망 미설치 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 대기환경 취약지역의 환경정책 기초자료 확보, 그리고 환경오염 민원 발생 시 현장 측정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차량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가스상물질(SO₂, NO₂, O₃, CO), 기상요소(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 측정하여 환경감시실로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1991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연구원은 현재 2016년에 구축한 최신 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5월까지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예정인 3개 지역(미추홀구 주안동, 연수구 송도2동, 서구 중봉대로변)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측정 자료는 신설 예정 대기오염측정소의 기초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환경조사과는 앞으로 환경오염 민원지역 및 수도권매립지 대기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 정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신설예정 대기오염측정소에서의 이동차량 측정모습



❖ 그린빌딩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조사연구

기후변화과는 그린빌딩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쿨루프 및 그린루프 설치 지점과 대조군, 모의실험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온실가스(CO₂, CH₄), 온·습도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쿨루프 설치지점에서 이산화탄소는 대조군 대비 6 ppm 낮게 나타났다. 대기 온도는 쿨루프에서 2.7 °C, 그린루프에서 2.2 °C 낮게 관찰되었으며, 습도는 각각 6.1 %, 5.8 %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쿨루프의 표면온도는 대조군 대비 10 °C 낮게, 그린루프는 8 °C 낮게 관측되었다.

식물 8종의 공기정화능 실험에서는 24시간 경과 시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80 % 이상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시간 경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는 산호수, 뽕갈고무나무, 아레카야자, 파키라 순으로, 메탄은 파키라, 산호수, 아이비, 박쥐란, 아레카야자 순으로 높은 제거효과를 보였다.

기후변화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쿨루프와 그린루프의 대기 중의 온·습도와 온실가스 변화,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물 외적으로는 쿨루프와 그린루프를 조성하고 실내에서는 식물 기르기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쿨루프(좌)와 그린루프(우) 설치지점 및 기후변화물질 측정실험

❖ 하천 수질건강을 위한 물환경측정망 운영

해양조사과는 관내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물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8개 하천, 11개 지점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1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중금속 등 8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조사결과에 따르면(BOD 기준) 공촌천(빈정교), 굴포천(삼산3교), 굴포천2(당미교), 장수천은 Ⅰ등급(좋음), 굴포천1(천상교), 장만수천, 내가천, 공촌천3(공촌3교)이 Ⅱ등급(약간 좋음), 승기천이 Ⅲ등급(보통)으로 비교적 양호하나 심곡천, 나진포천은 Ⅳ등급(약간 나쁨)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1분기 하천의 평균 BOD 농도는 3.1 mg/L(보통)로, 2019년(평균 5.1 mg/L)에 비해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환경부 지정(4)				인천시 지정(5)					연구원 지정(2)	
	공촌천	굴포천1	장만수천	내가천	심곡천	나진포천	굴포천	장수천	승기천	공촌천3	굴포천2
BOD(mg/L)	1.8	2.6	2.3	2.4	6.6	6.2	1.6	1.1	4.7	2.9	1.6
등급	좋음	약간좋음	약간좋음	약간좋음	약간나쁨	약간나쁨	좋음	좋음	보통	약간좋음	좋음

수질조사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ecopia>) 및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양조사과는 관내 하천 수질 개선, 여름철 조류 발생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생태독성 숙련도 평가 '적합'

환경생태과는 2020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정도 관리 수질분야 '생태독성 항목'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태독성 검사는 폐수, 하수 중 다양한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오염물질에 민감한 물벼룩(Daphnia

magna)을 이용하여 급성독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향후 우리 원은 생태독성 검사에 신뢰성이 검증된 분석기관으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숙련도 시험을 충족하여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물 분야

❖ 강화지역 소 구제역 감염(NSP) 항체 검출 농장 바이러스 순환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지역 소 농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순환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SP항체(Structural Protein : 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 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백신 미흡 여부를 판단하는데 SP항체 양성률을 활용하고 있다. 소의 경우 SP항체 양성률이 80 % 이상이어야 하는데, 금번 감염(NSP)항체 양성농장의 경우 98.9 %로 추가 백신접종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 순환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NSP)항체 양성농장 20개소는 3월 19일자로 모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추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감염(NSP)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혈청검사는 매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5.13. 기준)까지 백신(SP) 항체 549농가 8,125건, 감염(NSP)항체 494농가 7,347건을 검사했다. 이중 감염(NSP)항체 부적합은 관내 20농가 36두였으나, 15농가 30두가 도태되었고, 5농가 6두는 음성 전환축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SP)항체 양성률 부적합은 6농가(소 2농가, 염소 4농가)로 추가 백신접종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6농가 모두 백신 항체 양성을 적합으로 판정되었다.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중 하나인

구제역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며,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우농장 구제역 백신접종 모습

❖ 도서벽지 가축방역 및 무료 진료

보건환경연구원 동물 위생시험소는 강화군, 옹진군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와 협력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서 지역인 옹진군 백령면(5. 27~29.), 강화군 교동면(5. 28.) 및 삼산면(5. 29.)을 찾아 상반기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다.

최근 인천 강화군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감염(NSP)항체가 검출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함께 방역상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강화군 전체 우제류(소, 염소)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소 농장 20개소에서 구제역감염(NSP)항체가 검출되어 추가백신접종, 감염(NSP)항체 양성축 조기 도태 및 바이러스 순환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동물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 지역(강화군 교동면·삼산면, 옹진군 백령면) 축산농가에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진료반을 보내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약품도 배부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시 되는 구제역 방역 요령 및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농가별로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방역차량을 이용한 소독지원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무료진료를 통한 일대일 방역교육이 축산농가에게 가축방역분야의 최신 동향을 접하는데 도움이 되고, 철저한 방역 및 위생관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옹진군 백령면 방목 사육 농가 전경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1. 접종대상 :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염소, 사슴
2. 접종기간 : 소, 염소는 1년 중 2차례 접종, 사슴은 연 1회 출산, 제각(뿔 자르는) 시기에 맞춰 접종
3. 접종백신 : O+A형 백신
 - 구제역 백신 구입방법 A. 소규모농가의 경우 시, 군에서 일괄배부 B. 전업농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
 - ※ 소규모농가-보조100%, 전업농-보조50%
4. 접종방법 - 소규모농가 : 공수의 등을 통한 접종 지원
 - 전업농가 : 자체 일제 접종
5. 모니터링 - 일제접종 4주 후 백신(SP)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 과태료 부과
 - 백신 추가접종 및 1~2개월 내 추가검사 실시



보건 분야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

감염병진단과는 2009년부터 인천공항 주변 매개체를 채집하여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을 감시하고 있으며,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기에서 뎅기열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항공기를 통한 매개체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숲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뎅기열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이 주 증상으로 동남아(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뎅기열 발생현황** : '17년 171명, '18년 159명, '19년 273명, '20년 41명(감염병포털, '20년 5월)

감시사업은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는 7월부터 10월까지로 확진자 주변 환경 6지점을 선정하여 증상 발현일 기준 3주 동안(주2회) 모기를 채집하고 종의 분류 및 동정,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병원체는 뎅기열, 황열, 웨스트 나일열, 치쿤쿠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 제3급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9년 7~10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1명으로 (뎅기열 10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명)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매개체 환경 감시가 수행되었다. 채집 모기는 총 6,750마리로 흰줄숲모기는 765마리(11.3%)이며, 전체 모기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 BG-sentinel trap 설치 모습



❖ 식약처와 한약재 안전관리 공동 연구

약품분석과는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재 안전관리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약재 중 오크라톡신 A 시험법 교차검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5종(필발, 강활, 당귀, 방풍, 황기)을 대상으로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이며, 연구결과는 오크라톡신 A 기준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크라톡신 A는 한약재를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해물질로,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한약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곰팡이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한약재의 곰팡이독소 관리기준은 총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에 대해 감초 등 21품목에 설정되어 있으나,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관리기준은 설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약품분석과는 앞으로도 한약재 곰팡이독소 기준 미설정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협치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소금 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착수

식품분석과는 최근 해양오염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초 연구로 소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계획하였다.

소금은 인간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으로 단순히 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 식품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해수가 주원료인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식품업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없는 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소금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진행하여 소금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소금 50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후에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젓갈, 액젓과 같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천일염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것으로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

재제소금

- 천일염을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꽃소금 등)

태움·용융소금

- 천일염을 400도 이하에서 볶은 소금, 400도 이상에서 구운 소금 등(죽염 등)

정제소금

- 전기투석을 이용한 정제기술로 만든 소금 (순도 99% 이상의 소금, 주로 가공식품 원재료로 사용)

기타소금

-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만든 소금

가공소금

- 소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 (맛소금 등)

▲ 식품유형에 따른 소금의 종류



환경 분야

❖ 하절기 오존 예·경보제 운영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 대기 중에 고농도로 존재하면서 기침, 메스꺼움, 호흡기 자극 및 폐기능 저하 등의 피해를 준다. 또한 일부 폐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사망률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고농도 오존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절기(4월 15일~10월 15일)에 오존예보를 시행한다. 예보는 오존의 발생조건, 기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오존농도를 4단계 예보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산출하며, 그 결과를 하루 2회(오전 9시, 오후 6시) 권역별로 제공한다.

권역별 오존예보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홈페이지(<http://air.incheon.go.kr>)를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해 최대 2개 지역(군, 구)에 대한 예보결과를 매일 오전에 받아볼 수 있다.

❖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년부터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는 세부 시행방법을 전면 변경하여 실시한다. 이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새롭게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생활환경과는 악취관리지역 주변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및 공단이 위치하고 민원이 집중된 곳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새롭게 선정된 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시행 방법에 따라 1개 지점 당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대기질 조사는 반기별 3회(새벽·주·야간)로 변경하여 조사한다.

이를 위해 악취관리지역별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관리지역 내' 4개 지점, 그 주변 구역에 있는 '경계지역' 2개 지점, 악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지역' 4개 지점 등 10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관내 8개 악취관리지역의 총 80개 지점을 대상으로 복합악취 및 22개 지정 악취물질 등 총 23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 악취문제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수욕장 수질검사

해양조사과는 인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여름철 휴양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29개소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모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진행에 앞서 검사결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 구 시료채취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매년 진행하는 해수욕장 검사는 개장 전 1회, 개장 중에는 2주마다 1회, 폐장 후 1회 검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검사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19년 18개소 → '20년 29개소). 수질의 경우 장염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영향 미생물인 장구균(100 MPN/100mL 이하)과 대장균(500 MPN/100mL 이하)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백사장 모래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 등 중금속 5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의 해수욕장은 수도권 생활권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피서지로서, 물놀이뿐만 아니라 갯벌 생태체험 등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다. 이에 해양조사과는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해수욕장 검사대상(29개소)

- 중 구 : 왕산, 을왕리, 실미, 하나개
- 강화군 : 동막, 민머루
- 옹진군 : 웅암, 수기, 진촌, 한들(북도면), 구리동(연평면), 사곶(백령면), 지두리, 모래울, 예동(대청면), 서포리, 밧지름, 떼뿌루, 문갑, 굴업(덕적면), 장골, 이일레, 큰말, 큰풀안, 작은풀안, 계남, 벌안(자월면), 장경리, 십리포(영흥면)

❁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목욕장수 수질검사

수질보전과는 상반기 동안 관내 총 244개 목욕장 업소 중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욕장 욕조수는 일반욕조수와 순환여과식 욕조수로 구분되는데, 순환여과식 욕조수는 기 사용한 목욕물을 순환·여과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순환여과식 욕조수는 일반 욕조수 검사항목(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대장균군)에 2항목(유리잔류염소, 레지오넬라균)을 추가하여 검사한다.

특히 목욕장 욕조수는 레지오넬라균 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경미한 독감(발열, 근육통)증상으로 그칠 수 있으나,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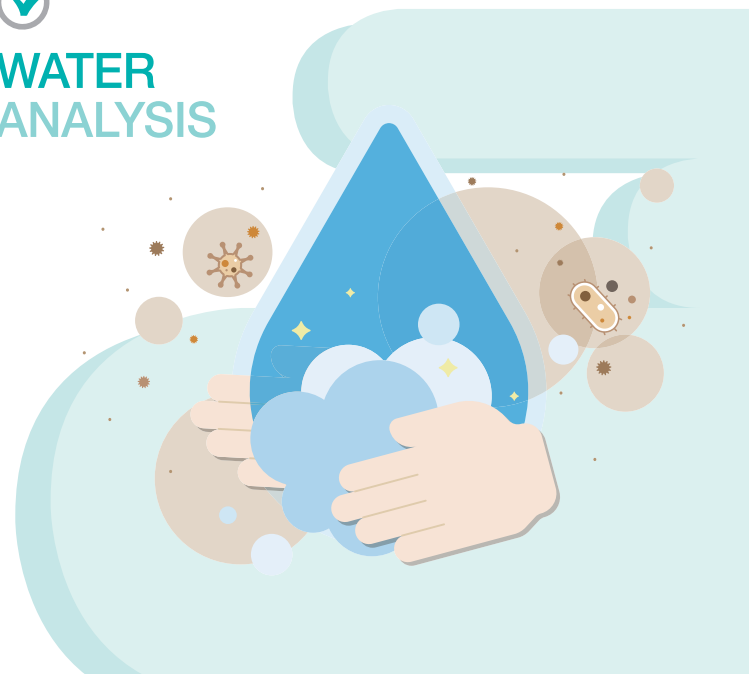
2019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소독제인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수질기준(0.2~0.4 mg/L) 보다 낮아 대장균 검출 등 수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보전과는 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 자료를 종합하여 위생적인 목욕 환경조성 및 다중이용시설의 하나인 목욕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 목욕장수 수질기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순환·여과하여 재이용 욕조수 수질기준 신설('19. 7. 1. 시행)
 - 기존 3항목 → 5항목(유리잔류염소, 레지오넬라균 추가) 확대
 -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적용은 욕조수 순환여과식 소독 설비가 염소소독 장치인 경우에 해당('19. 12. 31. 개정)



**WATER
ANALYSIS**



❖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토양환경과는 매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의한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관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영종 스카이 72 골프클럽 등 인천관내 8개 골프장에 2019년 개장한 강화 유니아일랜드가 추가되어 총 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반기(4~6월)와 하반기(7~9월) 2회 검사를 실시하며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최종 유출수) 시료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등

28종의 농약을 분석, 고독성 농약¹⁾ 3종, 잔디사용 금지 농약²⁾ 7종, 일반농약³⁾ 18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토양환경과는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인식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1) '고독성 농약'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일반농약' 과태료 부과 기준 없음.



동물 분야

❖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발생위험도 조사

방역관리과는 모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5월부터 관내 공원에서 심장사상충 발생위험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려동물들의 산책 등 출입이 잦은 공원



▲ 개 혈액 속 심장사상충

6개소(원신근린공원, 십정녹지, 미추홀공원, 송현근린공원, 송학체육공원, 남동근린공원)를 선정하여 설치된 DMS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를 통해 흡혈을 하는 암모기만을 선택적으로 유인하여 채집 후 검사할 예정이다.

심장사상충(*Dirofilara Immitis*)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을 모기가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혈액 순환장해를 일으켜 급성으로는 혈색소뇨, 빈혈, 황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내부기생충이다.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체내에서 성체가 되면 치료가 어렵고 치명적이지만,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구제제를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투약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이미 2019년 조사 결과 대상공원 6개소 중 4개소에서 12건의 심장사상충 양성을 확인하였고, 방역관리과의 유기동물 보호소 입소견을 대상으로 한 심장사상충 간이진단 키트 검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등 예방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방역관리과는 검사 대상 공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고 대기환경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문구를 게시하는 등 심장사상충의 예방·홍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원유 잔류물질 검사

정밀검사과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8호)]에 의거하여 원유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한다.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는 이 검사는 원유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검사물량은 국제기준(Codex)과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 300건(농장·차량 200건, 저유조 100건)으로 설정되었고 전국 집유장수와 집유량에 비례하여 인천은 4건(농장·차량)이다. 검사항목은 항생물질 5계열 34종, 합성항균제 1계열 23종, 농약 4계열 9종, 구충제 1계열 2종, 항염증제 1계열 2종, 환경유래물질(아플라톡신 M1) 1종으로 총 71종이며, 검사대상은 집유장에서 집유 전 검사(관능, 비중, 알코올, 진에)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농가의 우유 또는 잔류물질 상시검사 불합격 집유차량의 농가별 우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물질 기준초과 시 부적합 원유가 제조·가공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농장에 대한 잔류원인 조사를 실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 기관(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조치한다.

정밀검사과는 향후 지속적인 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인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학술정보

❖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하세요!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볼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패혈증을 말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볼니피쿠스는 바다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18~20℃ 이상으로 상승할 때 증식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대부분 여름철에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간경화와 같은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혈액소침착증 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비브리오 볼니피쿠스에 오염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된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가 난 피부가 노출될 시 감염될 수 있다.

16~24시간의 잠복기 후에 급작스러운 발열, 오한,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고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 증상 후 30여 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부에 병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지, 특히 하지에 부종, 발적, 반상 출혈, 수포, 궤양, 괴사 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간질환 환자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매년 20~40명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30%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해변에서 피부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 발생 시에는

재빨리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한다. 어패류 등 해산물을 반드시 익혀 먹으며,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여름과 가을에 생선 등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건강백과)

비브리오패혈증

예 / 방 / 하 / 기

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합니다.

어패류는 9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끼,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 출처, 과학원(국립보건연구원)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 간 질환자, 담낭염 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복수(복강내 체액) 환자, 면역 결핍 환자, 만성질환,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질병관리본부

1339

❖ 농약, 농산물에 남아 있으면?

농약, 농산물에 남아 있으면?

헹궂기

씻기

삶기

데치기

조리과정에서 대부분 제거, 분해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과일의 껍질 벗기기에 의한 농약의 제거 효과

100%

바나나

98%

키위

97%

사과

94%

복숭아

+ 완두, 감자 등 채소류는 데치거나 삶기만 했을 때도 대부분의 잔류농약이 제거됩니다!

잔류농약, 효과적 제거방법

수돗물로만 잘 세척해도 80% 이상의 잔류농약 제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방정, 장용정 그게 뭐야? 제형마다 다른 약 복용법

서방정?

구강붕해정?

약 복용법

트로키정?

장용정?

식품의약품안전처

OPEN

알약, 캡슐, 사탕 등
약 종류 중 하나인 **고형 내복제**는
색도 모양도 제형도 다양각색!

왜냐하면~

약효성분의 **흡수시간, 흡수속도, 흡수부위**에 따라
다르게 제조하기 때문이에요

▶ 함부로 부수거나 가루로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
제형별 올바른 약 복용법
함께 알아볼까요?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정

- ✓ **제형 특징** ·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특수 설계
- ✓ **복용 주의점** · 정제 겉면 특수막 코팅으로
포개거나 씹어 먹지 않도록 주의
· 복용량 이상 섭취 시 필요 이상의 성분이
체내 흡수되어 부작용 발생 가능

장에서 용해되는 장용정

- ✓ **제형 특징** · 위산에 강한 성분을 넣어 장에서 소화되게 함
- ✓ **복용 주의점** · 우유 · 제산제와 병용할 경우 약효 감소

사탕처럼 빨아먹는 트로키정

- ✓ **제형 특징** · 사탕처럼 녹여먹어 목 부위에 작용하게 함
- ✓ **복용 주의점** · 삼키거나 깨물어 먹을 경우 약이 목을 통과해
소화관에서 흡수되므로 목에 작용하기 어려움

물 없이 먹는 구강붕해정

- ✓ **제형 특징** · 구강점막으로 흡수되어 약효가 빨리 나타남
- ✓ **복용 주의점** · 다른 정제에 비해 무르기 때문에
약을 깨낼 때 힘을 세게 주지 않도록 주의
· 타액만으로도 녹으므로 습도 높은 곳 보관 금지

❖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Check Point!
손소독제?
손세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소독제는 의약품 손세정제는 화장품 입니다!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른 제품입니다.

손소독제

피부 살균 · 소독 의약품



손세정제

손 세정 · 청결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피부를 건조하게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강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외용으로 피부에만 사용하세요!

눈, 구강, 점막과 같은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부가 민감한 유 · 아동은 소량만 써야 합니다.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보완·강화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의4) 설정 ('20년 4월 3일)
PM-10 → PM-2.5 전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변경 전 (환경부고시)	변경 후 (환경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200 $\mu\text{g}/\text{m}^3$ 이하 - 철도, 시외버스 150 $\mu\text{g}/\text{m}^3$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mu\text{g}/\text{m}^3$ 이하 (차종 구분 없음)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추가

- 수입, 반입, 사육, 방사, 양도, 양수, 보관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됨

구 분	환경부고시 제2019-185호 (2019. 10. 11.)	환경부고시 제2020-61호 (2020. 3. 30.)	비 고
포유류	뉴트리아	뉴트리아	<i>Myocastor coypus</i>
양서류 · 파충류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i>Rana catesbeiana</i>
	붉은귀거북속 전종	붉은귀거북속 전종	<i>Trachemys spp.</i>
	—	리버쿠터	<i>Pseudemys concinna</i>
	—	중국줄무늬목거북	<i>Mauremys sinensis</i>
어류	파랑볼우럭(블루길)	파랑볼우럭(블루길)	<i>Lepomis macrochirus</i>
	큰입배스	큰입배스	<i>Micropterus salmoides</i>
갑각류	미국가재	미국가재	<i>Procambarus clarkii</i>
곤충류	꽃매미	꽃매미	<i>Lycorma delicatula</i>
	붉은불개미	붉은불개미	<i>Solenopsis invicta</i>
	등검은말벌	등검은말벌	<i>Vespa velutina nigrithorax</i>
	—	갈색날개매미충	<i>Pochazia shantungensis</i>
	—	미국선녀벌레	<i>Metcalia pruinosa</i>

★ 활동, 행사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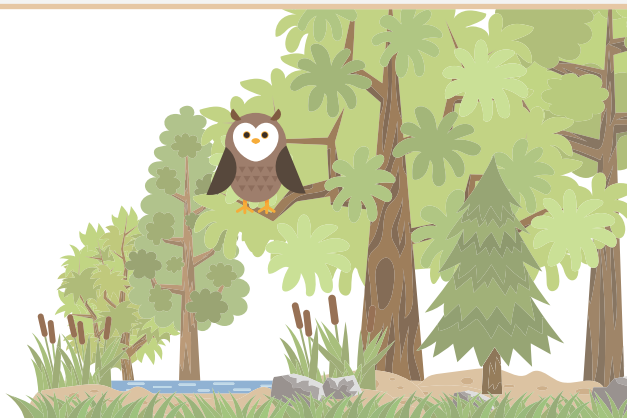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올해 1월 중구 영종도에서 구조한 수리부엉이 한 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2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대형 조류로,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드물게 관찰되는 새이다.

이 개체는 인천공항의 한 정비공장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로 신고 되었으며, 구조 당시 신체검사에서 외상이나 골절은 없었으나,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긴 굶주림 끝에 몸무게 1.13 kg의 기아 및 탈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정상 체중 1.5~4.5 kg). 약 10일 간에 걸쳐 실내 입원실에서 수액 처치와 영양 공급을 통해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였고, 먹이 반응이 양호해지자 야외 계류장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비행과 사냥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여 일만에 수리부엉이의 체중은 약 2.52 kg으로 활력도 회복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도 좋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

자연복귀는 동물이 원래 살던 장소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종도는 공항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먹이 부족으로 또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어느 정도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수리부엉이가 실제 서식하고 있는 영흥도를 자연복귀 장소로 정했다. 복귀 후 자연 적응 및 생태 모니터링을 위해 위성항법장치(GPS)와 개체 식별 가락지도 부착했다.

GPS 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3월 18일 영흥도 자연복귀 이후 현재까지 영흥도, 선재도, 그리고 대부도 전역에서 관찰되며, 멀게는 화성시 송산면, 시흥시 정왕동까지 오가며 자연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에도 GPS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리부엉이의 활동 반경과 이동 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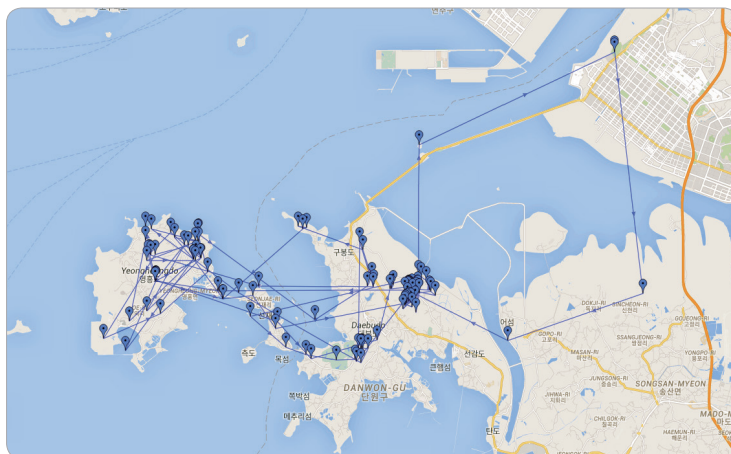
▲ 센터에 입원한 수리부엉이



▲ 계류장 사냥 훈련



▲ 자연복귀 모습



▲ 2020. 3. 18. ~ 5. 11. 수리부엉이 이동경로 (매일 2회 측정)

★ 활동, 행사 소식 ★

2020년도 1분기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

질병연구부 남화정 연구사가 인천광역시 2020년도 1분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업무에 헌신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남촌농수산물검사소 이전 확대 운영

남촌농수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업무동 4층에 전용 면적 180여 평 규모로 이화화실험실, 기기분석실(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중금속 분석 장비, 방사능분석기), 시약보관실 등을 갖추고, 연간 2,000여 건 이상의 잔류농약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운영한다.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및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수산물 또한 긴급 통보 및 회수 폐기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한다.

남촌농수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상 및 인사동정 ★

수 상
(개인)

◆ 2020년도 1분기 모범공무원 표창

일 자 2020년 3월 31일
수 상 자 남화정(질병조사과)
훈 격 인천광역시장 표창

◆ 2020년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일 자 2020년 4월 8일
수 상 자 장진섭(남촌농수산물검사소)
훈 격 인천광역시장 표창

◆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 유공 표창

일 자 2020년 5월 14일
수 상 자 송성민(식품분석과)
훈 격 인천광역시장 표창

◆ 인천광역시 2019년도 PM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선정

사 업 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지역의 도로먼지 저감시스템 과학화
등 급 우수
부 서 대기환경연구부

인사
동정

◆ 2020. 4. 13.

전 입

남지현(지방수의연구사) 동물위생시험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규임용

김태준(지방수의연구사시보)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리과

김민석(지방수의연구사시보)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위생과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완치자분들의 혈액 공여는 지금도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완치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왜 필요 하나요?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Q. 참여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참여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Q. 문의사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콜센터) 1522-6487

